시황

김장열의 '요것만'

코로나는 런닝 (Running) process & 러닝 (Learning) process

리서치센터장 김장열
jay.kim1007@gmail.com
02-3779-3531



6월 26일 미국 주식 시장은 2% 급락했다 (다우지수 -2.84%, S&P500 -2.42%, 나스닥 -2.59%). 2가지가 주요 이유인데 하나는 코로나 확진자 일부 주에서 다시 급증이다. 다른 하나는 유니레버가 SNS상의 혐오발언 등 첨예한 갈등을 이유로 20년 페이스북등에서의 광고 중단을 발표하면서 Facebook 8%대 폭락을 야기시킨 것이다 (알파벳 5%대, 트위터 7% 대 폭락). 코로나 이슈는 텍사스, 플로리다 주 등 코로나 확진자 재차 확대세가 뚜렷한 지역에서의 봉쇄강화 방침 소식이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텍사스, 플로리다, 아리조나 등 16개 주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전에 코로나 급증의 대표주였던 뉴욕주는 안정하락세이다. 6월 24일 미국 전체 신규 확진자는 41,925명, 6월 25일은 39,972명 (미국 누계는 2.45백만명)이다. 이전 4월 초중순 3만원 전후에서 5월에 2만명 이하까지 내려온 것 대비 증가한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7월부터 본격 경제 재개 효과를 기대했다면 다시 황색 신호등이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 사태는 백신이 제대로 준비되기 까지는 완벽한 back to (과거) normal은 없다. 그 기간동안 같이 잘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 코로나는 스프린터 (육상의 단거리선수)와 같이 앞만 보고 뛰어간다고 (Running)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긴 시간의 적응해 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러닝, learning) 과정인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뉴욕주는 (확진율 1.3% vs. 미국 최근 1주일 평균 6.1%) 텍사스, 플로리다 주 등에 병상 등 의료 지원을 제안했다. 최근 미국 신규 확진자의 50% 정도는 35세 이하이다 (상대적으로 버티어 보자는 명분을 삼으려는 연방/주 정부에 위안?). 사실 미국 밖도 불편하다. 3.3억 인구에서 4만명 전후 신규 확진자인 미국 대비, 2.1억의 더 적은 인구에 브라질의 6월 25일 46,860명으로 미국을 앞지는 신규 확진자, 열악한 의료체계... 하지만 글로벌 주식시장에/한국에 미칠 영향은 많이 중요하지는 않다 (목숨 값이 다르게 반영되는 현실로).

앞으로 확진자 재급증을 마주친/마주칠 국가 (미국의 각 주도 개별 국가급)는 3C를 어떻게 줄이면서 동시에 전쟁 같은 봉쇄를 피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해야 할 것이다. 3C는 Closed (밀폐공간), Crowded (붐비는 장소), Close-contact (밀접 접촉). 한국/중국처럼 특정 spot 집중 track/testing 조치일 것이다. 이제 경제를 붕괴시킬 수 없다는 것도 코로나는 장기전이라는 인식도 이전 (몇 개월 전) 보다 높아졌다면...기본적 마인드의 변화와 (마스크는 기본이고, 이른바 전통적 바캉스/여름휴가는 없고 등) 정부의 재정정책 지속으로 버티면서 소비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러닝 learning process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일정 시간 지나면 결국은 런닝 Running할 때를 기다리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김장열)

연락처: 02-3779-3513 / Email: jay.kim1007@gmail.com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투자등급 4 단계	Buy (매수)	+15% 이상	53.2%	투자의견 비율은 의견 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 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Hold (보유)	-15% ~+15%	0.6%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0.0%	
		Not Rated(투자의견없음)	등급보류	46.2%	
		합계		100.0%	